

### 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논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노인들이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

## 고령화시대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박영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상 노인인구는 약 3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9%, 2020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전망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남성보다 약 7세 높으며 70세 이상 여성 인구비율이 남성의 1.5배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문제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여성노인의 대부분은 평생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고 노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일생을 살아온 여성노인들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노후에 경험하는 배우자 상실, 자녀의 독립, 손자녀 양육의 부담 등은 여성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다양한 문제를 갖게한다.

### 고령화 시대 여성노인의 삶 : 무엇이 문제인가?

#### ■ 경제적 빈곤

오늘날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다. 우리 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월평균 수입액은 10만원 미만인 23%, 100만원 이상이 6.4%로 대부분 규모가 매우 적다. 남성은 58%가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여성은 33.7%만이 준비하고 있어, 여성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부양자인 남편에 의존했을 경우 빈곤 위협의 가능성이 큼을 예상할 수 있다. 특

히 65세 이상 공공부조 수급자의 경우 여성이 74%를 차지하여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건강문제

여성은 평균 수명도 길지만 질병, 장애기간도 남성보다 길다. 생애 중 질병·장애 기간은 여성 12.7년, 남성 7.3년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더 길다. 만성질환도 남성보다 약 15%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남성노인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보다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중풍 등 만성적인 퇴행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으며 유방이나 자궁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10.9%, 남성노인의 3.7%가 치매증세를 보여 장기요양 및 간병의 부담도 크다.

■ 사회참여 기회부족과 소외문제

여가활동 참여실태를 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가정내 종교생활 등 정적인 활동이 많고 운동이나 서예, 그림, 음악, 놀이, 관광 등의 동적인 취미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단체활동 참여율 또한 낮은 편이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여성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고령자 적합 직종과 노인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하다.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여성노인의 경우 5명 중 1명은 혼자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고령일수록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독거 노인의 84.6%는 여성노인이다. 오늘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아직 재가 복지서비스나 시설보호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PPFK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여성노인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보다 편안하고 풍족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의 입장과 삶의 현실이 반영된 노인복지가 실현되고,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 ▶ 여성노인에 대한 연령과 성의 이중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대책이 시급하다.
- ▶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간다.
- ▶ 여성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요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간다.
- ▶ 여성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호적인 관계 속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여가활동 향유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고령사회의 노인부양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다. 이에 보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수준의 보호, 재할, 사회적 및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